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4)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1-7)

디모데 후서 3장16-17절에 보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고 또한 그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먼저 16절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고, 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기도 한다. 우리들이 16절은 익숙하다. 그러나 17절은 종종 소홀하다. 17절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

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은 성경이 신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한다. 먼저, 온전케 한다는 것은 주로 성도들의 내적인 부분에 변화를 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다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케 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된다. being과 doing의 변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중요하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결여된다면 결코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순서이다. 두 가지가 모두 성숙한 신자의 표지인 것을 맞지만, 내적인 변화를 거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말씀으로 변화된 증표인 것이다. 그렇다

고 해서 모든 선한 행동이 내적인 변화의 결과로만 들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선한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내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로 행동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덕목이 아니다. 모든 고등 종교가 다 그것을 추구해 간다. 어떤 경우에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 보다 더 긍휼이 풍성할 때가 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많다. 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적인 변화가 주님과 만난 내적인 변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행한 교회이다.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은 교회이다. 그러나 아직 위대한 교회는 아니다. 좋은 교회가 목표라면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로 인정받기에는 결정적으로 내적인 것이 부족한 교회이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문구이다.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면에서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는 어떻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변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 교회이다. 교리에 정통한 교회이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통 보수파 교회 정도 될 것이다. 꽤나 유서 깊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성도들이 성경 지식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 꽤나 수준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 받아 마땅한 교회처럼 보인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우리의 예상대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신다. 칭찬해 주신다. 칭찬의 내용이 2:2-3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이 정도 칭찬 하신 교회도 드물다. 확실히 에베소 교회는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교회인 것이 분명하다. 소위 말해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말씀 드리면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구비한 교회이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 받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선한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결코 첫 번

째 메시지가 전부는 아니다. 외적으로 선한 사역을 행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호된 책망을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되,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만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주님의 책망 속에 담겨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위대한 교회

비록 주님께서 외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선한 사역에 대하여 칭찬하시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선한 일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린 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다.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한 사역만 가지고는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위대한 교회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가지고 말해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 없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으면 주님을 향한 선한 사역도 중단되어야 마땅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귀결되지는 않는다. 에베소 교회의 실례처럼, 내적으로 주님과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외적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이 중단된 채 행해지는 선한 사역들은 의무감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위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첫 사랑을 잃

어버린 것은 아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다. 그 감격으로 인하여 밥을 굶어도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주님과 나누게 된 첫 사랑의 달콤함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 내었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역사에 힘을 쏟아 부었다. 만만치 않은 수고가 해야 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그 분이 원하시는 사역에 헌신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단호히 이단을 거절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에베소 교회가 점차로 초심을 잃게 된 것이. 외적으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외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려하고 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에 있다. 어느 순간에서 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점차로 그들의 내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 점점 더 종교인이 사는 자리에 익숙해진다. 주님과의 나누었던 짜릿한 사랑의 관계는 시들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서 부터인지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다. 흥미로운 것은 첫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외적인 활동은 더 요란해진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부산한 움직임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을 첫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에 불편함이 없어진다. 타성에 젖게 된다. 익숙해진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게 된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인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첫 사랑의 아름다운 시절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신선한 봄날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 때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적용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라는 교훈에 대하여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내적으로 주님과 첫 사랑을 잃어버린 채, 외적인 활동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들이 엉뚱한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적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내 자신이 너무나 위선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 때 많은 신자들은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행해왔던 일체의 “선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답으로 찾는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답안지인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성도가 구역장으로 봉사한다. 그런데 도대체 내적으로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 매주일 구역장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의무감으로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란 없다. 그러다 보니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더더욱 없다. 이러한 상태로 괴로워한다. 그러다 급기야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역장 그만 두는 쪽으로 결단하게 된다. 그러한 판단이 매우 양심적인 듯 보이지만, 올바른 적용은 아니다. 내 심령에 주님과 첫사랑이 없다고 선한 행위 자체를 아예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첫 사랑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사랑 없이 행하는 선한 사역이기에 보기에 따라서 위선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

소 교회가 행한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다. 선한 사역에 힘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아니 우리들은 억지로라도,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지라도 끝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선한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쳐야 할 영역은 첫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내적인 우리의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좋으신 주님께 첫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문제는 첫 사랑이 없는 것이지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한탄해야지, 주님이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우리 모습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져도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 교회 안팎을 섬기는 봉사들, 세상을 향한 선행들을 계속 되어야 한다.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칭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아파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타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다시금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불타오를 때 가능하다. 그 결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 잃어버린 첫 사랑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으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